우암학원 창학74주년
WCC 세계적인 전문대학 선정!
전남과학대학교
CHUNNAM TECHNO UNIVERSITY

全南日報

제10053호 2024년 8월 5일 월요일 음력 7월 2일

somic
서울디엠씨
아파트·타운하우스 개발 사업

민형배 '5위' 반등에도 호남 최고위원 '좌초 위기'

광주·전남서 '득표율 1위' 불구
당원수 대비 투표 참여율 저조
2022년 비해 8~14% 이상 하락
"고령자 ARS투표 참여 어려워"
양부남·주철현 각 시·도당위원장

더불어민주당 8·18 전당대회의 분수령으로 꼽힌 광주·전남지역 경선이 마무리된 가운데 호남 출신 최고위원 배출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유일한 호남 출신 민형배(광주 광산을) 후보가 지역 경선에서 압도적인 지지율로 순위 반등에는 성공했지만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면서 당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다.

민주당은 4일 오전 10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오후 2시 나주 다목적체육관에서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합동 연설회를 개최했다.

연설회 시작 전부터 각 연설회장 입구 근처에 설치된 후보자 천막에는 수십 명의 지지자들의 모여 후보들의 이름을 외치며 지지를 호소했다.

연설회 첫 주자로 나선 이재명 후보는 "잘못된 뉴스를 접하며 광주를 비난하던 철없던 사람 이재명을 이 나라의 인권과 평화,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는 투사로 만든 것은 나의 사회적 어머니, 광주"라며 "광주는 민주당의 텃밭이 아니라 언제나 민주당을 일깨우는 죽비"라고 밝혔다.

이어 "생산력에 걸맞는 소비를 유지하고 극단적 양극화를 막기 위해서는 초과이윤의 상당한 부분을 결국 국민들의 소득과 소비를 위해 지출하지 않을 수 없다"며 보편적 기본사회를 만들기와 더불어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지역균형발전에 앞장설 것을 공언했다.

이 후보는 이날 광주 2만1767표, 전남 2만9784표로 각각 83.61%, 82.48%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다시 한 번 압도적인 지지를 확인했다. 이날 기준 이 후보의 누적 득표수는 16만542표, 누적 득표율은 86.97%다.

최고위원 후보들도 5·18, 김대중 정신, 윤석열 정권 타도, 민주주의와 지역균형발전 및 민생 등을 바탕으로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강조하며 광주·전남 민심 잡기에 나섰다. 그 중에서도 민형배, 한준호 등 호남과 연이 깊은 의원들을 향한 응원열기가 가장 뜨거웠다.

특히 유일한 호남 출신 최고위원 후보인 민형배 후보 천막에는 많은 당원들이 플래카드를 내걸며 민 후보의 이름을 연호하는 등 지지자들로 북적였다.

시원한 해수욕장으로 폭염경보가 내려진 4일 완도명사십리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들이 무더위를 피해 시원한 바닷물에 몸을 담그며 더위를 잊고 있다. 김양배 기자

"광주의 민형배"라고 연설을 시작한 민 후보는 "지난 6년 호남 재선 국회의원 3분이 최고위원에 도전했으나 모두 실패했다. 제가 네 번째인데, 성적은 신통치 않다. 그러나 광주 당원동지 여러분이 민주당의 뿌리인 광주·전남에서 시작해서 수도권으로 부는 대역전의 태풍을 만들어주실 것을 믿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치검찰을 박살내고, 이재명 정부를 만들어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잘 사는 균형 잡힌 대한민국을 위해 민형배를 반드시 최고위원으로 보내주시라"고 호소했다.

민 후보는 이날 광주·전남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결과, 광주 27.77%, 전남 21.68%의 득표율을 기록해 8위에서 5위로 반등하는 데 성공했지만 오는 10일 예정된 경기지역 경선이 6위인 김병주 후보의 지역구인만큼 5위까지 주어지는 당선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3면에 계속

오지현·정성현 기자

양궁 임시현·사격 양지인 金·金 명중

펜싱 女사브르, 올림픽 최초 단체전 銀
배드민턴 혼합복식 16년 만의 은메달

2024 파리 올림픽이 반환점을 돈 가운데 태극전사들의 선전이 이어지고 있다. 양궁 여자 개인전과 사격 25m 권총에서 금빛 명중에 성공한 데 이어 펜싱 여자 사브르 단체전에서는 역대 최고 성적인 은메달을 획득했다.

'한국 여자 양궁 간판' 임시현(21·한국체대)이 3일(이상 현지시간) 오전 프랑스 파리의 레쟁발리드에서 열린 2024 파리 올림픽 여자 양궁 개인전 결승에서 '집안싸움'을 벌인 남수현(19·순천시청)을 7-3(29- 29 29-26 30-27 29-30 28-26)으로 꺾고 금메달을 차지했다.

생애 첫 올림픽에 출전한 임시현은 여자 단체전과 혼성 단체전에 이어 여자 개인전까지 석권하며 대회 3관왕에 올랐다.

생애 첫 올림픽에 출전한 '양궁 여자 대표팀 막내' 남수현은 임시현의 벽에 막혀 은메달에 머물렀지만 단체전 금메달에 이어 두 번째 메달을 목에 걸었다.

사격에서도 다시 한번 금빛 총성이 울렸다. 양지인(21·한국체대)은 같은날 오전 프랑스 샤토루 슈팅센터에서 열린 사격 25m 권총 여자 결선에서 37점을 기록한 뒤 슛오프에서 4점을 쏴 금메달을 획득했다.

펜싱 여자 사브르 대표팀은 처음으로 올림픽 단체전 은메달을 수확했다.

최세빈(24·전남도청)·윤지수(31)·전하영(23·이상 서울시청)·전은혜(27·인천 중구청)로 구성된 여자 사브르 대표팀은 같은날 프랑스 파리 그랑팔레에서 열린 대회 단체전 결승에서 우크라이나에 42-45로 역전패를 당했다.

유도 대표팀은 대회 마지막 종목인 혼성 단체전에서 동메달을 합작했다.

이준환(용인대)·김하윤(안산시청)·김민종(양평군청)·허미미(경북체육회)·안바울(남양주시청)·김지수(경북체육회)로 이뤄진 대표팀은 대회 혼성 단체전 동메달 결정전에서 골든스코어(연장) 끝에 독일을 4-3으로 꺾었다.

이로써 한국 유도는 2020 도쿄 올림픽부터 정식 종목이 된 혼성 단체전에서 처음으로 메달을 땄다.

배드민턴 혼합복식의 세계 8위 김원호(25·삼성생명)-정나은(24·화순군청)은 2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 포르트드라샤펠 경기장에서 열린 대회 배드민턴 혼합복식 결승에서 세계 1위 정쓰웨이-황야충(중국) 조에 0-2(8-21 11-21)로 완패했지만 2008 베이징 대회 이후 16년 만에 최고인 은메달을 수확했다.

▶관련기사 5면

최동환 기자

상·하수도 비굴착

• 국내 최초 상·하수도 공용 전체보수공법
『환경부신기술 제508호 T.S.L공법』

• 하수도 부분보수공법
『환경부신기술 제426호 O.P.L공법』

굴착교체의 문제점

하수관 보수 공사시 일반적으로 굴착 후 신관교체를 위주로 작업을 하고 있으며, 소음이나 교통체증 등 문제가 발생하며 안전사고 위험도 크다

비굴착 보수공법의 특징

• 굴착을 수반하는 하수관 보수공사에 비해 공사비 저렴
• 투입인원↓ 인건비 절감
• 하수관 내에 형성된 현장 경화관의 수명을 향후 50년으로 전망
• 단순한 시공 공정으로 안전사고 감소
• 타매설관과 접촉으로 인한 위험성 해소

"인간과 환경이 공존하는 글로벌 기업 (유)탑환경건설·(주)탑앤제이"

환경을 생각하고 미래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글로벌 리더로 거듭나겠습니다.

(유)탑환경건설 (주)탑앤제이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양일로 18번길 20
Tel 062)376-5599 Fax 062)376-0094